

2012. 10. 22.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2012년 10월 22일(월) 배포시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KDI 홍보팀

TEL 02) 958-4030 FAX 02) 960-0652 E-mail press@kdi.re.kr

2012 산업혁신 서비스 선진화 국제포럼

2012 MOSF-KDI International Conference:
Changes in Industrial Landscape
and the Future of Service Economy

- 기간: 2012년 10월 22(월)~23일(화)
- 장소: 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(5층)
- 주최: KDI · 기획재정부

세션별 주요 논의 사항 요약

세션 2. 제조업의 새로운 추세

발표 1. 대량 맞춤화 (Mass Customization)의 미래

미첼 쉴 홍콩과학기술대학교 석좌교수

- 대량 맞춤화는 "평균적 소비자"가 없기 때문에 필요함.
 - 하지만 평균적인 제품은 아무도 만족시킬 수 없음.
 - 이는 소셜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임.
- 대량 맞춤화는 개방(생산)시스템, 개방맞춤화 등과 관계가 있음.

- 생산과정을 공유하는 개방시스템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나 공개 혁신(open innovation)에서 발견됨.
- 개방맞춤화는 소비자가 최종생산물을 단순히 소비하는데에서 그치지 않고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패러다임임.
- 개방시스템, 개방맞춤화 등의 현상은 제조업의 새 지평을 열 것임.
 - 제조업이 단순히 재화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, 모든 사람을 생산에 참여케 해,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배울 수 있는 개방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.

발표 2. 글로벌 가치사슬과 제조업

코헨 디 베이커 OECD 선임이코노미스트

- 세계의 공장으로서 등장한 중국, 코스트리카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, 글로벌 가치사슬은 신흥국(emerging economy)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.
-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한국 제조업의 특징
 - 선진국에 비해 지식기반에 대한 투자가 절대적, 상대적으로 적음.
 - 한국은 고부가가치 제조업 분야에서는 매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, 글로벌 가치 사슬에 속해 있기 보다는 독자적인 가치사슬을 발전시켜 옴.

발표 3. 한국 제조업의 구조변화와 세계화

안상훈 KDI 산업·경쟁정책연구부장

- 한국경제 지난 40여 년 간 성장 과정과 산업구조 변화, 산업정책 개관
- 일본, 한국, 대만 등에 이어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중국 등 후발 개도국들로부터의 경쟁의 격화와 이에 대응한 국내 기업들의 생산의 국제화 경향은 한국경제에 새로운 도전
- 한국경제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이른바 ‘양극화’현상(대기업-중소기업, 수출산업-내수산업, 제조업-서비스업 간의 격차의 증대)도 경기 후퇴기의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세계화의 진전에 수반된 국제 분업 구조의 변화 및 그에 따른 국내 산업 구조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구조적 현상

토론

- 앤디 닐리는 성공적인 대량맞춤화를 위한 전제조건을 강조함.
 - 대량 맞춤화가 필요한 상품과 필요하지 않은 상품을 잘 구별해야 함.
 - 개방 (생산)시스템, 개방맞춤화와 같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의 발전 또한 필요
 - 여러 기업이 생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개방네트워크 구축
 - 애플의 사례는 소비자의 참여가 제품의 유용성을 현격히 향상시킨 좋은 예
- 김상철 논설위원은 혁신이 중요해진 현재 경제 환경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언급함.

- 정부는 대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보다는, 혁신에 뒤쳐진 중소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지원과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함.

❖ 문의: 송영관 KDI 산업·경쟁정책연구부 연구위원(02-958-4172)

❖ 첨부 1. 세션 2 발표 요약

제2세션. 제조업의 새로운 추세

“Mass Customization, Winter or Spring?” 대량 맞춤화의 미래

미첼 쉹 홍콩과학기술대학교 석좌교수

- 소비자들의 선호가 매우 다양한 만큼 기술 진보에 따라 제품 차별화가 더욱 세분화되는 대량 맞춤화의 추세는 당연한 결과임.
 - 과도한 맞춤화나 지나친 기술 채택으로 인한 맞춤화 실패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, 지난 10년간 수많은 성공적인 제품 차별화와 대량 맞춤화의 사례들을 관찰할 수 있었음.
 - 대량 맞춤화 경향은 소비자후생이나 기업전략 차원에서 당연한 귀결이며, 사실 최근 들어 나타난 추세가 아닌 연원이 긴 현상.
 -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, 차별화된 제품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, 이것이 최근 대량 맞춤화 경향이 더욱 관심을 받는 이유.
- 대량 맞춤화의 미래는 개방 맞춤화에 있음.
 - 제품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또는 제 3자까지 적극적으로 제품의 맞춤화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,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서 이미 많은 발전이 이뤄졌고, 제조업이나 서비스 부문에서도 개방 맞춤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.

- 최근 중요한 경제적 현상 중 하나인 제조업의 서비스화도 대량 맞춤화, 특히 개방 맞춤화의 흐름 중 하나로 볼 수 있음.

“Global Value Chains and Manufacturing”

글로벌 가치사슬과 제조업

코헨 디 베이커 OECD 선임이코노미스트

□ 생산과정의 세계적 분업화로 이해될 수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은 현재 제조업의 세계화와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이슈임.

- 자동차, 항공기, 휴대전화와 같은 제품들은 설계, 부품생산, 조립, 그리고 판매과정에서 선진국, 개발도상국, 저개발국을 망라하는 수십 개 나라가 관련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. 중국이나 코스타리카 등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의 성공적인 역할을 찾아낸 좋은 사례.
- 지난 10년간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른 중국을 중심으로 제조업의 중심이 개발도상국, 저개발국으로 급속히 넘어가는 등, 세계경제의 중심이 동진하는 현상이 두드러짐.
- 선진국에서는 제조업의 비중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나, 지식기반 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새로운 중요한 역할을 개척하고 있음.

□ 한국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에서 매우 성공적이지만,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역할을 맡고 있다기보다는 독자적인 가치사슬을 발전시키고 있음.

- 선진국들과 비교 시, 지식기반 자산에 대한 투자가 절대적,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,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적절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 서비스에 대한 개발과 투자가 필요.

- OECD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선진국, 개발도상국 간 기여의 정도를 분석하고, 참여 국가들의 역할을 정립하고, 지식기반 자산이 참여 국가들 사이에서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다양한 연구들을 지속할 예정.

“Globalization and Structural Changes in Korean Manufacturing”

한국 제조업의 구조변화와 세계화

안상훈 KDI 산업·경쟁정책연구부장

- 한국경제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지난 40여년간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이루었고 이 과정에서 수출을 통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은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됨
- 반면 일본, 한국, 대만 등에 이어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중국 등 후발 개도국들로부터의 경쟁의 격화와 이에 대응한 국내 기업들의 생산의 국제화 경향은 한국경제에 새로운 도전
 - 한국경제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이른바 ‘양극화’현상(대기업-중소기업, 수출산업-내수산업, 제조업-서비스업 간의 격차의 증대)도 경기 후퇴기의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세계화의 진전에 수반된 국제 분업 구조의 변화 및 그에 따른 국내 산업 구조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구조적 현상
- 한국경제가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의 국제화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자본과 인력 등 생산요소의 부문간 재배치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

□ 본 연구는 산업 및 사업체 수준의 미시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산의 국제화 경향이 한국의 산업구조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검토하고자 함

- 신생기업의 진입과 사양기업의 퇴출을 통한 경제의 신진대사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생산성 제고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?
- 생산의 국제화 속에서 명암이 엇갈리는 성장부문과 낙후부문 간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?